

이재명 맞설 '야권 대표' 대권 주자는?

조국·김동연·김경수·김두관 경쟁구도 낮은 인지도가 최대 약점인 김 지사 친문 영입·조국 세력 두루 포섭 행보 4인방,李 사법리스크 불거질시 주목 차기 대선 후보 '초석 다지기' 치열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

여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안'을 찾는 유권자 사이에서 야권 내 차기 대선 주자 2인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4인이 거론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들 지지층으로부터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보다 유의미한 지지율이 기대되는 동시에 '야권 2인자 후보' 4인방 간 표심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낮은 인지도가 최대 약점인 김 지사는 친문 세력을 영입하고, 조국혁신당 행사에 참석하고, 이 전 대표의 정책을 지지하는 등 야권을 두루 포섭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2.9%로 나타났다(조원씨아이).

정당별로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이 전 대표(47.4%)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36.1%)에 이어 5.7%를 기록, 김 지사 개인으로는 가장 높은 지지도가 나온 정당이다.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4%)보다 더 높은 지지도인 이 전 민주당 내 이 전 대표(78.1%)의 1인자로서 공고한 입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다음으로 전체 지지도가 높게 나온 조 대표는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시 야권에서 차기 대권 주자 2인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

나다. 조 대표는 여권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 전 대표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조 대표의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에서 김 지사도 야권을 지지하지만 이 전 대표의 대항마를 찾는 사람들이 주된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 참석한 것은 그런 지지층을 견고히 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야권이지만 이 전 대표와는 결을 달리 하는 친문 세력을 경기도에 입성시킨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개팔'과 적을 지는 것을 아니다. 인지도가 한참 낮은 상황에서 적을 많이 만들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초석을 다지기도 전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눈길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야권 2인자 자리를 두고 조 대표와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도 2인자 후보로 거론된다.

때문에 조 대표 지지층도, 친문도, '개팔'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메시지를 즐기치게 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반(反)보수임을 강조하면서 암묵적으로 이들 세력에 우호적인 신호를 던지는 것이다.

전날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차기 대선 야권 판도는 조국 대표,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김두관 대표 후보 등 4명 정도 플랜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가 과거 친문 세력을 대거 영입해서 경기도 요직에 두루 배치한 것도 당내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김동연 "조금의 포장없이, 부족했던 그대로 담겠다"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작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직원들이 다들 애써주고 고생했지만 장례, 이주노동자, 유가족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과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며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누가 뒀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도 포장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자"며 "형식적으로 정보를 모아 놓은 보고서로 어디 서가에 처박히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읽게끔 백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어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이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합보고서 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에는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산업안전, 화학물질, 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보고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 등 구성안과 집필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재난 예방·대응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화성 공장화재의 사고 수습이 최종 완료되면 추가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최종 종합보고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종합보고서는 자문위원회의 지속적인 논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는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재난 예방·대응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화성 공장화재의 사고 수습이 최종 완료되면 추가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최종 종합보고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응급복구 70억' 쏟는다

파주·안성시 등 18개 시군 긴급 지원 도로·하천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목적

경기도가 이달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파주시 등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6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해 파주시에 19억 원, 안성시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응급복구는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토사제해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통해 도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폭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도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누적 강수량 평균 360.0mm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파주시(조산리) 763.5mm, 연천군(삼거리) 681.0mm, 동두천시(상매동) 595.0mm 순이다.

이 기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천·도로 등 잠정 279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파주시는 신고개선 제방 유실(연장 200m, 높이 3m) 등 83건, 안성시는 축산교(80m, 40m) 유실 등 47건, 평택시는 세교지하차도(760m, 19m) 침수 등 2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시 등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6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해 파주시에 19억 원, 안성시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을 긴급 지원

"소통과 공감대로 협치의회 만들 것"



집행부 감시 이외의 이해·존중 강조 의원 교육·연수 통한 '전문성' 제고 북부특자도 추진 공론화 필요 언급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를 위해 시의회도 시민 의견 수렴,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시가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후반기 의회에 들어서면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 ▲의원 교육·연수 확대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의사일정·회의운영 절차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

내년까지 간추재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유례없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간추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지·교육·안전 등 시민 삶의 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해 시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의회-집행부, 의원들 간의 소통·화합을 증진시켜 건강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소통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협치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반기 의회의 소통·협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감시·견제뿐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협치도 포함된다"며 "후반기 의장으로서 집행부와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협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열린 '의정부시-시의회 정책협의회'는 시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의회를 반기별 정기 또는 필요 시 비정기 개최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같은 소통·협치로 주력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공론화"를 꼽았다.

그는 "경기북부는 규제도 인해 남북 대비 경제가 낙후돼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의정부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것이 왔다"... 폭염 비상 1단계 가동

도, '행정부지사 특별지시'로 대응 6개 반 15개 부서와 비상상황 대비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대응 태세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건강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강화 ▲재난안전문자·마을방송, 전광판 등 가용 매체 활용해 낮시간 작업자 등 행동 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폭염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내 8개 시군에 폭염경보, 2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도는 이날 오전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명의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김 부지사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부

도는 비상 1단계 가동 후 폭염 집중시기 건강취약계층, 야외근로자, 낚시·작업자 등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난달 24일 재난관리기금 21억 원을 시군에 지원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장마 종료 후 폭염 집중시기 건강취약계층, 야외근로자, 낚시·작업자 등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난달 24일 재난관리기금 21억 원을 시군에 지원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부

파주·안성시 등 18개 시군 긴급 지원 도로·하천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목적

경기도가 이달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파주시 등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6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해 파주시에 19억 원, 안성시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을 긴급 지원

파주시 등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6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해 파주시에 19억 원, 안성시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을 긴급 지원

이번 파리올림픽은 배달특급과 '맛~있게'

도, 31일까지 소비자 할인 이벤트 진행

응원에 배달특급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6일부터 31일까지 파리올림픽 개최 기념 '배특과 응원해'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근 기자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배달특급 도내 서비스 전 지역 소비자에게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MEDI-CHECK health checkups. Text includes: '건강검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약문의 031)250-5800', 'https://gg.kahp.or.kr', and '대한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수원)'.